

# ‘남자친구’ 부터 ‘SKY캐슬’ 까지...비지상과 다시 꿈틀



한동안 주춤했던 비지상과 드라마들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tvN 수목드라마 ‘남자친구’가 10%(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했고 같은 채널의 토일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7% 시청률을 넘겼다 두 드라마 모두 2회 만에 거둔 성적이라 향후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JTBC 역시 금토드라마 ‘SKY 캐슬’로 4회 만에 7.4%를 찍었다. 그간 승승장구하다 최근 들어 잠시 고개를 숙였던 tvN의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다가온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은 일드 원작의 정서적 차이를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나인룸’은 너무 뜸썹하고 과장된 이야기 전개로 tvN 드라마 같지 않은 느낌마저 주었다. ‘미스터 션샤인’이 썼던 왕관의 무게를 이어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독특하고 실감적인 소

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다. 향간에는 ‘출세하고 찬란한 도깨비’의 판타지 계보를 잇는 작사가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인’과 ‘W’로 보여줬던 송재정 작가 특유의 판타지가 가진 매력 이 작품에는 고스란히 묻어났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쟁탈전 속에서 현실과 가상이 접목된 광경들은 SF적이면서도 동시에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고 스페인 그라나다의 이국적 풍광 속에서 펼쳐지는 달달한 멜로가 더해진다. 이 게임이 실제와 연결되면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겨나고 있다. tvN이 그 자리에 ‘출세하고 찬란한 도깨비’ 같은 작품으로 세웠던 장르물과 판타지의 기대를 채워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제3의 매력’으로 살짝 고개

를 숙였던 JTBC 금토드라마도 ‘SKY 캐슬’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SKY 캐슬’이라는 부유층이 사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사교육 전쟁의 이야기가 폭로하듯 전개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이 던져진다. 첫 회에 서울대의대에 합격한 아들 때문에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 엄마는 2회 만에 자살을 함으로써 그 이면에 숨겨진 넘어서는 안 될 악마의 유혹이 존재한다는 걸 실감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건 ‘SKY 캐슬’ 역시 JTBC 금토드라마가 그간 구축해온 드라마의 색깔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작품이라는 점이다. JTBC 드라마는 그간 ‘미스티’나 ‘봄이 있는 그날’, ‘밀회’ 같은 작품들을 통해 기독교 충을 비판하는 사회적 질은 작품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전적이 있다. ‘SKY 캐슬’도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불편하지만 보다보면 우

리네 현실의 축소판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실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사실 최근 들어 우리네 방송가에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월화예 5편, 수목예 7편, 금토일에는 무려 10편에 가까운 드라마가 방영된다. 하지만 쏟아지는 양에 비해 주목되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새해를 한 달여 앞두고 방송사들은 저마다 비장의 무기들을 꺼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새롭게 기지개를 켜는 작품의 면면을 보면 그간 그 채널이 쌓아온 드라마의 색깔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새로 피어나는 tvN의 장르물과 ‘SKY 캐슬’로 고개를 들고 있는 JTBC의 사회극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상파들은 어떤 대응으로 나올까.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사명감 담아 연기” 유해진x윤계상 ‘말모이’가 전할 감동



“정말 사명감이 생겼다.” 배우 유해진과 윤계상이 ‘말모이’를 촬영하며 우리 말에 대한 사명감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촬영 비화부터 우리 말에 대한 배우들의 애정까지, ‘말모이’ 제작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3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말모이’ (감독 엄유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엄유나 감독을 비롯해 유해진 윤계상 우현 김태훈 김선웅 등이 참석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말모이’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마귀 판수(유해진 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 분)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을 모으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말모이’는 주시경 선생이 남긴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로 조선말 큰 사전의 모태가 된 ‘말모이’에서 따온 제목이다.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자 극 중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우리말을 모으는 비밀작전의 이름이기도 하다. 특히 ‘말모이’는 ‘택시운전사’ 각본을 통해 시대의 비극, 그 한복판으로 가게 된 평범한 한 사람의 선택과 각성의 드라마를 흥미롭게 그려내 호평을 받은 엄유나 감독의 첫 연출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더한다. 이날 유해진은 ‘말모이’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정말 우리 말이 소중한 거지, 지켜왔구나, 지켜졌구나’ 싶었고 우리 말을 지켜왔던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며 “전체적으로 느끼기엔 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또 “말모이라는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까마귀 판수 시절을 통해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까 그런 점에 끌렸다”고 덧붙였다. 윤계상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리말에 대한 사명감’이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번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말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더라”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영화를 통해 쉽게 보여주는 게 좋은 기회이지 않나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윤계상은 “극 중 제가 맡은 정환이 판수를 만나 변화하게 된다. 사람의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큰 뜻을 이루는 게 옳다고 여기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 영화적인 모습 보다 진짜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 그걸 풀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촬영하면서 마음앎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캐스팅 비화도 들을 수 있었다. 엄유나 감독은 “영화라는 게 사전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열정을 보자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게 사전 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적용되더라. 그래서 배우 분들 욕심을 많이 냈다. 사람들이 빛나는 영화가 됐으면 했고 시나리오 쓸 때부터 유해진 선배님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 선배님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영화에서 빛나는 배우”라고 설명했다. 엄유나 감독은 이어 “‘말모이’는 말맛이 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유해진 선배님 말고도 떠오르지가 않더라”며 “윤계상씨는 조선어학회 대표와 같이 느껴졌다. 프로필의 출연작을 검색해보면 적이 있는데 끊임 없이 힘든 도전을 해왔더라. 정환의 모습이 윤계상의 도전하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겹쳐졌다”고 두 사람을

‘말모이’에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유해진과 윤계상의 재회도 관심 포인트다. 유해진은 “‘소수의견’ 때도 그렇고 ‘말모이’에서도 잠깐 만나게 아니었다. 이번에도 길게 만나서 길게 호흡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봐도 굉장히 편안했다”며 “이번 작품 역시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오를 썼다. 선배님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영화에서 빛나는 배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계상은 “형님을 배우로서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견’ 때 해진이 형님의 위트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봤다. ‘말모이’를 찍으면서 판수 역활의 유쾌한 부분에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싶었다”며 “형님의 열정도 그때보다 10배 갑

동적이었다. 나는 과연 그만큼의 에너지를 뽐낼 수 있을까 싶었다. 형님은 정말 절대적인 존경하는 배우”라고 덧붙였다. 배우들은 ‘말모이’ 촬영 후 달라진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유해진은 “다른 때 같으면 ‘말모이’ 파이팅을 외쳤을 거다. 하지만 현장에서사만이라도 ‘말모이’ 힘내자고 하게 되더라. 영화 현장 용어도 우리 말로 썼다. 영화를 찍을 때만이라도 변화를 주자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계상은 “배우가 진짜 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진짜에 다가가면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유들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지더라”며 “저 윤계상도 어느 순간 성장해 갔다”고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다. 한편 ‘말모이’는 오는 1월 개봉한다.

## 엑소, 신곡 ‘Love Shot’ 13일 발표...글로벌 인기질주ing



‘K-POP 킹’ 엑소(EXO), SM엔터 총 15곡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층

테인먼트 소속)가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 ‘LOVE SHOT’ (러브 샷)으로 인기 질주를 이어간다. 13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사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엑소 정규 5집 리패키지 ‘LOVE SHOT’은 기존 정규 5집 수록곡 11곡에 타이틀 곡 ‘Love Shot’ 한국어 및 중국어 버전, ‘트라우마 (Trauma)’, ‘Wait (웨이트)’ 등 4개 트랙이 추가된

풍성한 음악으로 글로벌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엑소는 정규 5집 ‘DON’T MESS UP MY TEMPO’ (돈트 메스 업 마이 템포)로 정규 1집부터 5집까지 100만장을 넘어 쿼텟플(quintuple)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것은 물론, 2000년 이후 데뷔 가수 처음으로 국내 누적 음반판매량 1,000만장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한 만큼, 이번 리패키지 앨범 역시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엑소는 이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23위 및 ‘아티스트 100’ 9위 랭크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 아이튠즈 전 세계 48개 지역 1위, 유니타이드 월드 차트 2주 연속 1위, 중국 사비뮤직 종합 차트 1위, 국내 음반차트 3주 연속 1위, 음악방송 1위 등 국내외 차트를 싹쓸이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엑소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 ‘LOVE SHOT’은 12월 13일 음반 발매되며, 금일(3일)부터 각종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



###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음력 10월 27일)

- ▶**띠** 매사 의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기 과시가 되면 곤란하다. 비, 사, 오 성씨는 대인관계가 활발하지만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많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3, 7, 10월생은 마음을 비우라. 남쪽 인연은 불길. 구설수 조심.
- ▶**띠** 동업자와 충돌할 듯. 기, 오, 천 성씨는 감성대로 하는 것보다 자제해야 손실이 적다. 애정은 두 사람을 저울질하지 말고 한쪽을 어서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3, 5, 9월생은 민지 말고 마음을 정리하라. 파란색이 행운.
- ▶**띠** 허영심을 버리고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2, 5, 10월생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훗날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비, 사, 흥 성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아무리 신경 써도 돌아오는 것은 짜증뿐이다.
- ▶**띠** 지나치게 자존심을 부리면 해롭다. 기, 사, 오 성씨는 자신감을 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애정 문제는 뒷사람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 1, 7, 9월생은 변동하지 말라. 자살 행위다.

- ▶**띠** 무슨 일든 하면 된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비, 기, 오, 천 성씨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써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다. 3, 5, 7, 9월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화로 푸는 것이 좋겠다. 여자는 시댁 식구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 ▶**띠** 비, 오, 천 성씨는 무슨 일든 침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2, 5, 7, 11월생은 동료의 모함이 우려되니 매사 조심하며 친분을 쌓으라. 나이만 탓하지 말고 주변을 넓게 돌아보라. 배필이 있겠다. 분홍색으로 여유를 가지라.
- ▶**띠** 목은 것은 과감히 처리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개척하는 것이 좋을 듯. 3, 7, 10, 12월생은 이득도 없는데 미련을 갖지 말라. 손실만 더 커진다. 기, 기, 천 성씨는 순발력 있게 한 길만 택하라. 붉은색이 행운을 준다.
- ▶**띠** 단단한 일들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될 듯. 2, 4, 8월생은 대인관계에서도 즐거움을 얻겠다. 오후에는 가정에 신경 쓰라. 투자는 전반에는 길하지만 후반에는 불길. 사, 오, 천 성씨 여성은 주황색 의상이 행운을 줄 듯.

- ▶**띠** 갈 길이 아직 멀다. 더욱 분발해야 할 듯. 신념을 굽히지 말고, 맡은 임무를 다할 때 뜻한 바를 성취한다. 3, 5, 6, 10월생은 마음에 미운 것이 있거든 다 버리고 살라. 닭, 양띠와 관계는 좋으나 주변에서 불티가 점화해 결국 멀어진다.
- ▶**띠** 매사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기, 사, 기 성씨는 당장은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안목 있는 사람이니 그대로 추진하면 대성한다. 3, 7, 8, 12월생은 상대를 친절히 대하라. 말수를 되도록 줄일 것.
- ▶**띠** 2, 5, 7월생은 대중이 모르는 곳에 가지 말라. 혹 누명을 쓸까 염려된다. 늦은 시간 외출을 삼가고 근신함이 좋겠다. 애정은 서로 의견 대립하고 심하면 별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후퇴다. 노란색이 힘을 준다.
- ▶**띠** 부부간에 신뢰를 지켜야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 기, 기, 사, 천 성씨는 내 의견보다 배우자 의견을 반영하라. 1, 4, 7월생은 운전을 조심하고 음식물에 신경 써야 안전하다.